



다뉴브강 병목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지연...최대 70척 대기

(Up to 70 ships queue off Danube as bottlenecks slow Ukraine grain exports)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은 수요일, 곡물 수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에 진입하려는 선박 최대 70척이 다뉴브강 술리나 운하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사 부족과 다른 화물에 대한 우선 처리로 선박 운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90%를 처리해 온 흑해 항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일부 곡물 수출 물량은 다뉴브강 항만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다뉴브강 항만의 처리 능력은 흑해 항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흑해 운송 차질로 이집트 수출용 밀 선적 준비

(France set to load wheat for Egypt as Black Sea disruption weighs)

해운 자료와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흑해 항로의 전쟁으로 인한 차질로 곡물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집트로 수출할 밀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 2척이 향후 며칠 내 프랑스에 입항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벨크선 나나 린(Nana Leen)호와 제노아(Genoa)호는 8월 30일 프랑스 서부 해안의 라팔리스(La Pallice)항에 도착해 각각 약 3만 톤의 밀을 선적할 예정이다.

출처: Thomson Reuters